

No. 377

대졸 NEET 특성에 대한 분석

남기곤

NEET 특성에 대한 분석¹⁾

(한밭대, 경제학)

1절 문제제기

취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17년 현재 15~29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9.8%로, 43만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2007년의 경우 이 연령대의 실업률이 7.2% 실업자 수가 33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10여년의 기간 동안에도 청년 계층의 취업난은 더욱 악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청년층의 경우 단순히 실업자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로는 분류되지 않지만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2007년 55만명에서 2017년 67만명으로 증가하였고, 15~29세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도 2007년 25만명에서 2017년 3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모든 지표들은 한국 청년층의 취업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어느 시기 어느 사회에서나 노동시장에 갓 진입하는 청년층은 취업하는데 애로를 겪기 마련이다. 취업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눈높이가 높아 만족스러운 직장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을 갖추지 못해 빈번히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다. 과연 한국의 청년 계층이 겪고 있는 취업 상의 애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며, 왜 이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에서 청년층의 취업 애로 상황이 보다 심각한 수준인지, 주로 어떤 특성을 가진 청년들이 취업 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취업 상의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청년층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상황에 대해 분석한다. NEET란 취업해 있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고 있지 않은 젊은 청년층을 나타내는 용어인데, 여기서는 한국에서 이러한 계층이 어느 정도 규모이며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는지 살펴본다.³⁾ 특히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중 NEET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다. 대학을 졸업할 정도로 충분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활동 상태가 변화하고 있는지 등이 본 논문의 주요한 분석 대상이다.

그동안 한국의 청년 NEET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다. NEET를 어떻게 정의하며 그에 따라

1) 본 논문은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용역으로 작성 중인 보고서의 초고이다.
2) 2018년 들어 청년 실업률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8월 현재 15~29세 연령층 중 실업자 수는 44만명이고, 실업률은 10.0%이다.
3) NEET라는 용어는 1999년 영국 정부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의무교육을 종료한 후 진학 또는 취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직업훈련도 받고 있지 않는 16~18세의 청소년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영국에서는 NEET 인구가 해당 연령 청소년의 9%, 약 16.1만명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 (Social Exclusion Unit, 1999). 일본에서는 이 개념이 확장되어 사용되어 왔다. 비노동력인구(비경제활동인구) 중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으며, 취업하지도 않고,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15~34세 사이의 해당하는 미혼 계층이 일본형 NEET 또는 무업자로 분류된다. 2000년 기준으로 일본형 NEET 인구는 75.1만명,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總務省, 2004 國勢調査).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남재량, 2006; 오민홍, 2007; 금재호 외, 2007), 어떠한 특성을 가진 청년들이 NEET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시계열적으로 어떠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김중욱, 2017; 남기곤, 2011; 남재량, 2011), NEET 경험이 이후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남재량·김세움, 2013), 그리고 NEET 현상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지(김유선, 2017) 등에 대한 분석들이 존재한다.⁴⁾

본 논문은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동일한 시기에 대학을 졸업한 동질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어떠한 특성을 가진 청년들이 NEET가 되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NEET의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 분석한다. 특히 여기서 관심을 가지는 사항은 능력이 우수한 청년일수록 NEET가 될 확률이 더 높은지 혹은 더 낮은지 여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이하에서는 GOMS라 칭함) 자료를 분석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2절에서는 OECD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의 NEET 현상이 국제적으로 볼 때 어떠한 차별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본다. 3절에서는 본 논문의 분석 모델 및 실증분석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4절에서는 어떠한 특성을 가진 청년일수록 NEET가 될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그리고 5절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른 동태적인 변화 추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시한다.

2절 NEET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이 실업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7년 현재 15~64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한국이 3.8%로 OECD 평균치인 5.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15~24세 연령층으로 한정하면 2017년 현재 한국 청년층의 실업률은 10.3%로 전연령층에 비해 높지만, 동일 연령층에 대한 OECD 평균치 11.9%에 비해서는 여전히 더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15~24세 연령대 실업자 중에서 12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비율 역시 한국은 0.2%에 불과하여 OECD 평균치인 17.0%를 크게 밑돌고 있다.

하지만 실업자만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 NEET로 분석 대상을 확대하면 한국의 상황은 그리 양호한 편이라 보기 어렵다. 다음 <그림 1>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15~29세 연령층의 NEET 비율을 도표화한 것이다. 그림을 보면 2015년 현재 한국의 NEET 비율은 18.0%로, OECD 국가들 중 NEET 비율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⁵⁾ 35개 국가들 중 한국보다 NEET 비율이 높은 나라는 칠레, 멕시코,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6개국 밖에 없다. 대체로 한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국가들이다. 일본의 경우 NEET 비율은 10.1%이고, 미국은 14.4%이며, OECD 국가들의 평균은 14.6%이다. 한국의 경우 실업자 NEET의 비율은 3.0%로 낮은 수준인 반면, 비경제활동 NEET 비율이 15.1%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⁶⁾

4) 외국에서도 NEET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청년들이 왜 NEET 상태를 선택하는 것인지, 가정배경이나 학력 수준과는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NEET 상태는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지, 국가의 직업훈련 정책은 NEET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등이 분석되고 있다. (Chen, 2009; Ranzani and Rosati, 2012; Yuji, 2007; Bynner and Parsons, 2002; Pemberton, 2008; Maguire, 2015)

5) 그림의 각주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한국은 2013년 자료이다.

6) OECD 자료에는 2007~2015년간 NEET 비율의 변화 추세도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이 기간 동안 NEET 비율은 0.6%p 감소하는 정도의 미세한 변화만을 보이고 있다. 2007년도에도 한국은 NEET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그룹에 속해 있었다. 한국에서 NEET 문제는 최근에 시작된 일시적 현

달리 NEET의 비율은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빠른 연령대에 결혼이 이루어지고, 결혼이나 출산 이후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여 가사 일에 전념하는 문화가 일반적인 경우, 여성을 중심으로 NEET 비율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요인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2>는 NEET 비율을 성별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이를 보면 한국의 경우 남자와 여자의 NEET 비율은 각각 17.3%와 19.4%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적어도 청년층의 경우에는 여자라고 해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경향이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NEET 비율이 높은 이유가 청년 여성층의 결혼과 육아 때문으로 설명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NEET 비율이 학력 수준과는 어떠한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저학력·저숙련 청년층 일수록 노동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NEET로 남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NEE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통해 이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떻게?

<그림 3>은 25-2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학력별 NEET 비율을 비교한 그림이다. 예상대로 어느 나라에서나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NEET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OECD 평균치를 보면 NEET 비율이 중학교 이하 학력 계층은 41.9%, 고등학교 19.6%, 대학 이상 13.4%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중학교 이하 학력 계층의 NEET 비율은 39.9%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⁷⁾ 주목되는 것은 고등학교 학력 계층과 대학 이상 학력 계층의 NEET 비율인데, 그 수치가 각각 25.4%와 23.6%로 1.8%p의 격차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 이상 학력 계층이 고등학교 학력 계층에 비해 NEET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차이가 미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두 학력 계층 간 NEET 비율 격차의 OECD 평균치 6.2%p와 비교하더라도 낮은 수준이다. 대학 이상 학력 계층만을 비교할 경우 한국의 NEET 비율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대학 이상 학력 계층의 NEET 비율이 특히 심각한 수준으로 높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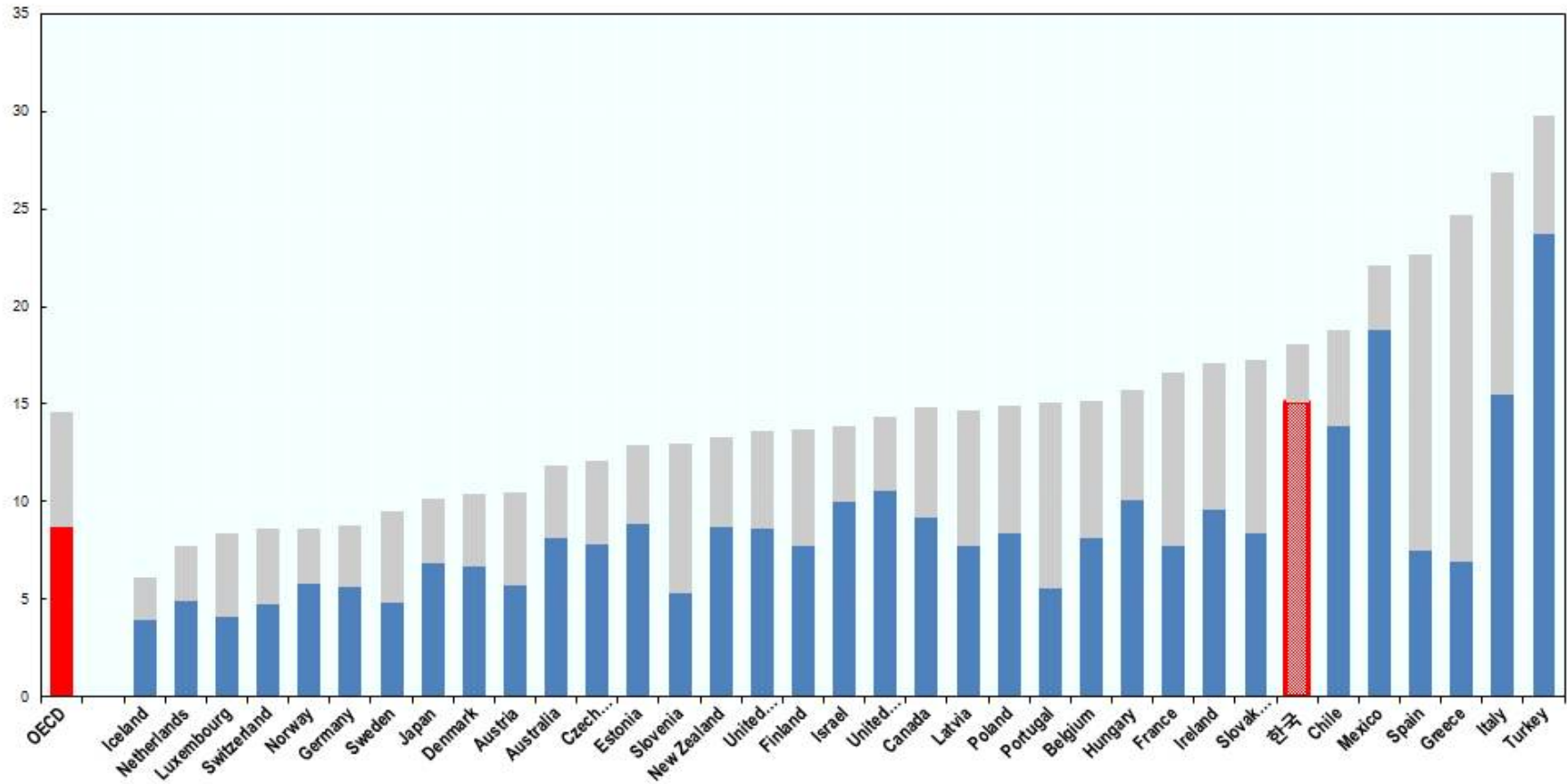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한국은 청년 NEET의 비율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여성이 결혼 후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회문화적 요인과도 관련이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 이상 고학력 계층의 NEET 비율이다. 다른 나라의 일반적 추세와는 달리 대학 이상으로 학력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고등학교 학력 계층에 비해 NEET 비율이 감소하는 폭이 적어, 한국은 고학력 계층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NEET 비율을 나타내는 국가군에 속해 있는 상황이다.

대학 이상의 고학력 청년들이 왜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NEET화 되고 있을까? 대학 졸업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까, 아니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일까? 일단 직업을 가진 청년들이 다시 NEET로 되지는 않는 것일까? 이러한 다양한 의문들에 답을 구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GOMS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시기에 대학을 졸업한 동질적 집단을 대상으로 졸업 이후 일정 시기에 (1년 6개월과 3년 6개월) 졸업생들의 경제활동 상황을 추적·분석하기로 한다.

상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7) 한국의 경우 중학교 이하 학력의 청년층 규모는 매우 적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총조사 자료를 보면 25~29세 연령층 내에서 학력 수준이 중학교 이하인 사람의 비율은 0.7% 수준에 불과하다. (고등학교 재학자와 중퇴자를 포함하더라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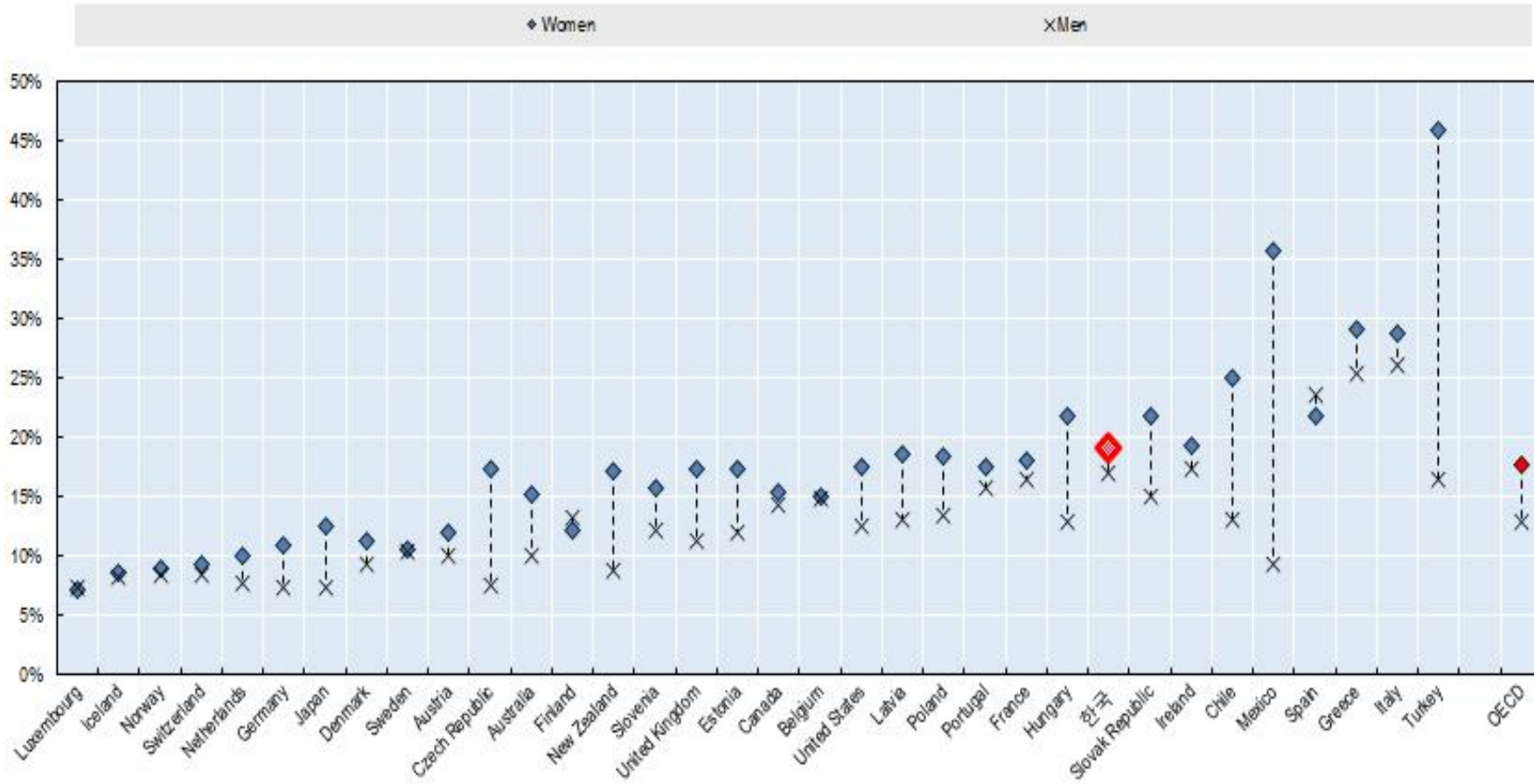
< 1> NEET 비율 (2015년 현재)



: 아래 막대는 비경제활동인구 NEET 비율이며, 위쪽 막대는 실업자 NEET 비율임. 칠레와 한국은 2013년, 이스라엘은 2014년 자료임.

자료: OECD(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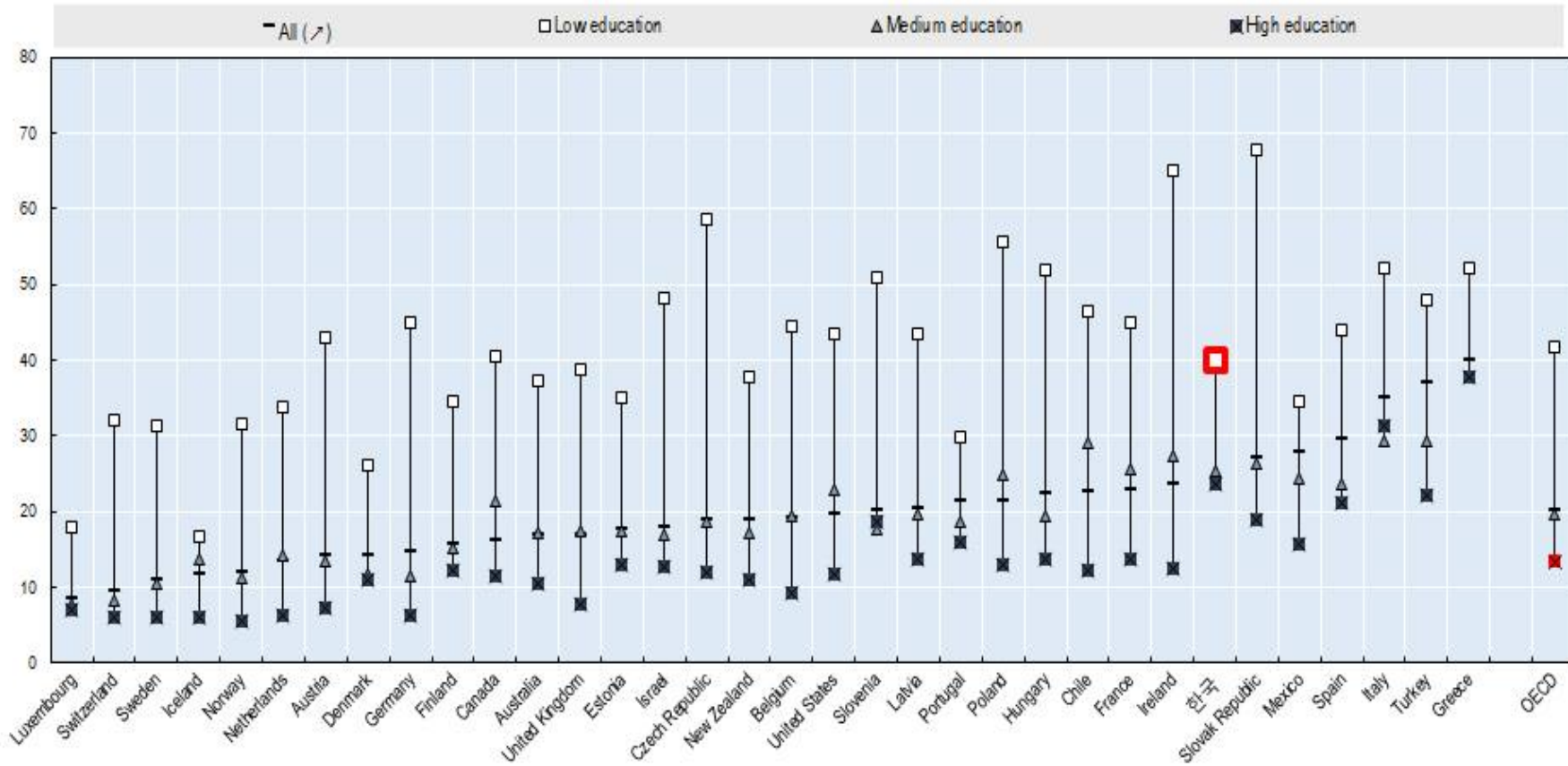
< 2> NEET 비율의 성별 비교



: 15~29세 연령층의 남녀별 NEET 비율. 일본은 15~24세, 미국은 16~29세 연령층. 칠레와 터키는 2013년, 다른 나라들은 모두 2014년 자료임.

자료: OECD(2016)

< 3> NEET 비율의 학력수준별 비교 (25~29세 연령층)



1) 호주, 칠레, 독일,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기는 2013년 자료이며, 나머지 국가는 2014년 자료임.

2) “Low education” 중학교 이하, “medium education” 은 고등학교나 post-secondary education을, 그리고 “high education” 은 고등교육을 의미.

자료: OECD(2016)

3절 분석 모델 및 실증분석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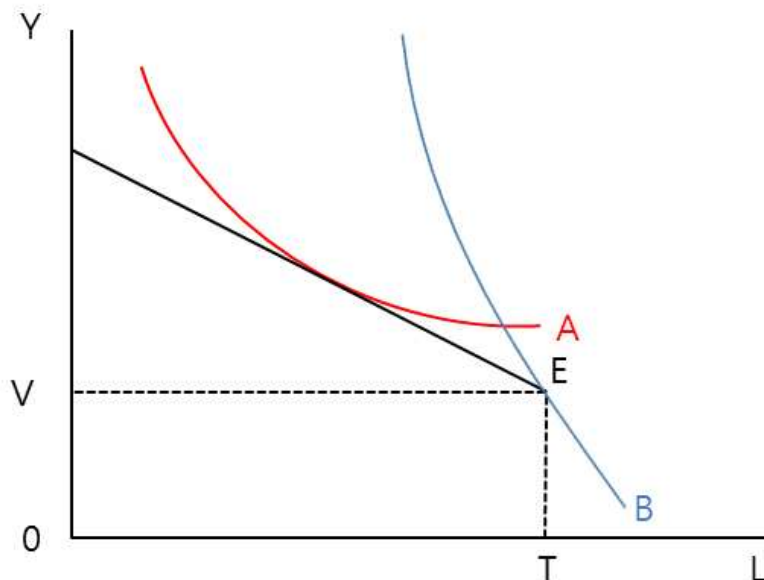
(1) 모델

개인의 노동시장 참가 여부는 소득-여가 모델에 의해 설명된다. 시간당임금을 w , 총 가용시간을 T , 노동시간을 H , 여가시간을 L , 비근로소득을 V 라고 하면, 개인의 총소득 Y 는 다음 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wH + V = w(T - L) + V = (wT + V) - wL \quad (1)$$

위의 예산제약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다음 <그림 4>이다. 개인은 예산제약선과 자신의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노동공급 시간을 선택한다. 만약 A처럼 균형점이 예산제약선의 내부에서 형성될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노동공급을 하는 반면, B와 같이 초기부존점인 E점에서 극대 효용값이 형성될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결국 E 점에서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즉 한계대체율이 시간당임금보다 더 큰지 여부에 따라 노동시장 참가 여부가 결정된다. 통상 이 때의 한계대체율을 유보임금(reservation wage)라 부르는데, 노동시장에 참여할 때 최소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그림 4> 노동시장 참가에 대한 소득-여가 모델



이 모델에 따르면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는 유보임금 수준과 시간당임금 그리고 비근로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이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할 수 있는데, 우선 비근로소득 V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환경을 고려할 수 있다. 청년기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 경

V가 증가하고, 이는 그림의 예산제약선을 수평으로 위쪽으로 이동시켜 소득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균형점이 우상향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 양호한 가정환경을 가질수록 개인의 무차별곡선은 더욱 가파른 형태를 띠 가능성도 있다.⁸⁾ 이 역시 유보임금을 증가시킴으로써 노동시장 참여 확률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개인이 직면하는 시간당임금 수준 역시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개인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면, 능력이 우수한 사람일수록 노동시장에서 마주하는 (제의를 받는) 시간당임금도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능력이 우수할수록 개인의 무차별곡선은 보다 가파를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능력이 우수한 사람은 노동을 하지 않고 취업준비를 했을 때 향후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이 보다 클 것이고, 따라서 여가 1시간의 가치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능력이 우수한 사람일수록 노동시장에서 제의를 받는 시간당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다른 한 편으로 무차별곡선도 가파르고 유보임금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요인에 의해서는 노동시장 참여 확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 결국 개인의 능력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 여부가 어떻게 변할지는 이론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2) 대한 설명

본 논문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주된 사항은 과연 능력이 높은 청년일수록 NEET가 될 확률이 유의하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가정환경이 NEET 확률 감소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이다. 가정환경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아버지의 학력이나 대학 입학 당시 가구소득과 같은 변수들을 회귀분석에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개인의 능력이 NEET 확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와 관련이 있는 졸업평점이나 토익성적 그리고 자격증 변수를 회귀분석에서 이용한다. 하지만 이들 변수들만으로는 개인의 능력을 포착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졸업평점이란 소속 대학의 내신 성적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대학마다 수준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개인 능력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토익 성적 변수는 무응답이 많아 개인별 능력 측정에 한계가 있으며, 자격증 역시 전공마다 성격이 달라 그 개수만으로 능력의 편차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변수로 (대학 졸업 직전 최소) 희망임금이라는 개인의 주관적 변수를 이용한다. GOMS 조사에서는 1차 조사 시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 귀하가 취업을 통해 최소한으로 받고자 한 소득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라는 문항을 물어 보고 있다.⁹⁾ 물론 이와 같은 주관적 판단이 개인의 능력 혹은 생산성을 얼마나 정확히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과소 혹은 과대 측정의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희망임금이란 변수는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의미 있는 대리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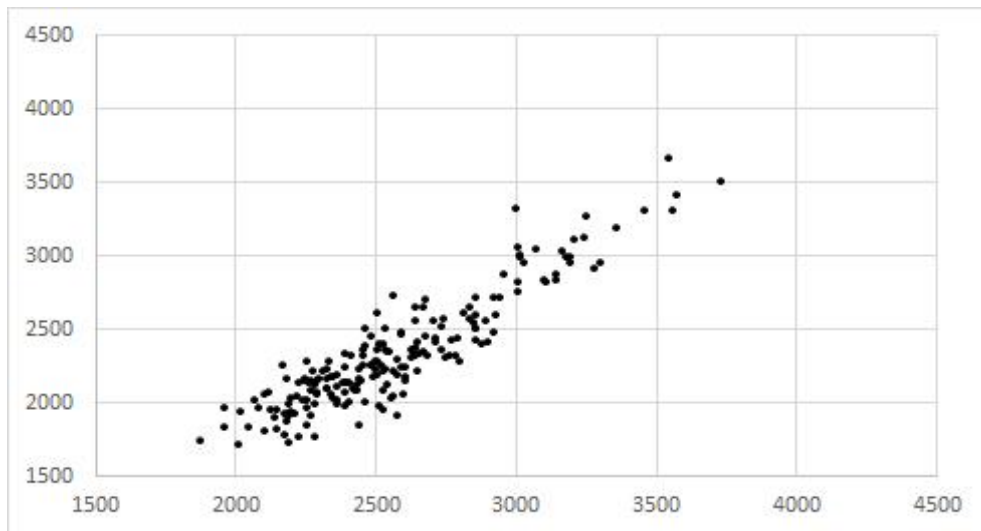
다음 <그림 5>와 <그림 6>은 GOMS 2010년 졸업생 1차 조사와 2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각 대학별로 졸업생의 희망임금 평균과 조사 당시 취업한 사람의 평균 임금 간의 상관성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8) 무차별곡선의 한계대체율은 여가 1시간의 주관적 가치를 의미한다. 가정환경이 양호한 가구의 자녀일수록 여가 1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9) GOMS 자료를 분석해 보면 실제 이 임금 수준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실제 취업해 있는 사람들이 다수 발견된다. 따라서 이러한 임금 수준을 앞의 분석모델에서 설명한 유보임금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개인의 최소 희망임금 수준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10) 약간의 예외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희망임금의 평균값이 높은 대학일수록 실제 취업자의 평균임금도 높아지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¹¹⁾ <그림 7>에서는 GOMS 2015년 졸업생 1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식의 분석을 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도 역시 희망임금의 평균값이 높은 대학일수록 실제 평균임금 수준도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¹²⁾ 대학별 졸업생의 평균임금 값은 시계열적으로도 안정된 값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졸업생과 2015년 졸업생의 대학별 희망임금을 도표화한 <그림 8>을 보면 이 두시기 동안 대학별 희망임금은 매우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9>는 수능성적이 확인되는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별 수능성적과 희망임금 간의 상관성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¹³⁾ 수능성적이 높은 대학일수록 희망임금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희망임금이 개인의 능력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계열적으로도 안정된 값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5> 대학별 희망임금과 실제 임금 (2010년 1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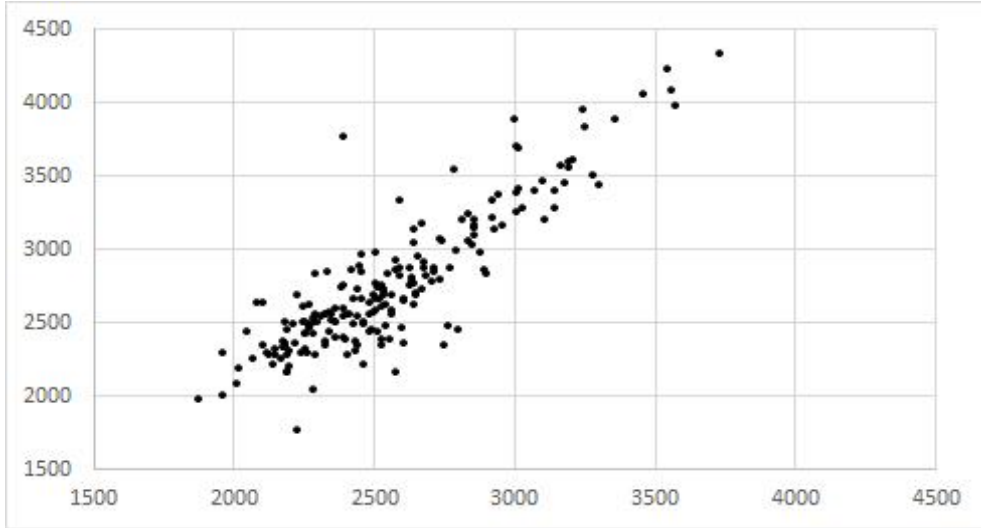
10)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GOMS 자료에서 1차 조사 당시 연령이 35세 이상인 사람, 그리고 전년도 8월에 졸업한 사람은 제외하였다. 희망임금이 상위 0.1%와 하위 0.1%인 경우 이상치(outlier)로 보고 이 변수에 대해 무응답 처리 하였다. 실제 임금은 아르바이트 일자리와 연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상위 0.1%인 경우는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11) 1차 조사 시 표본 수가 25명 이상인 대학만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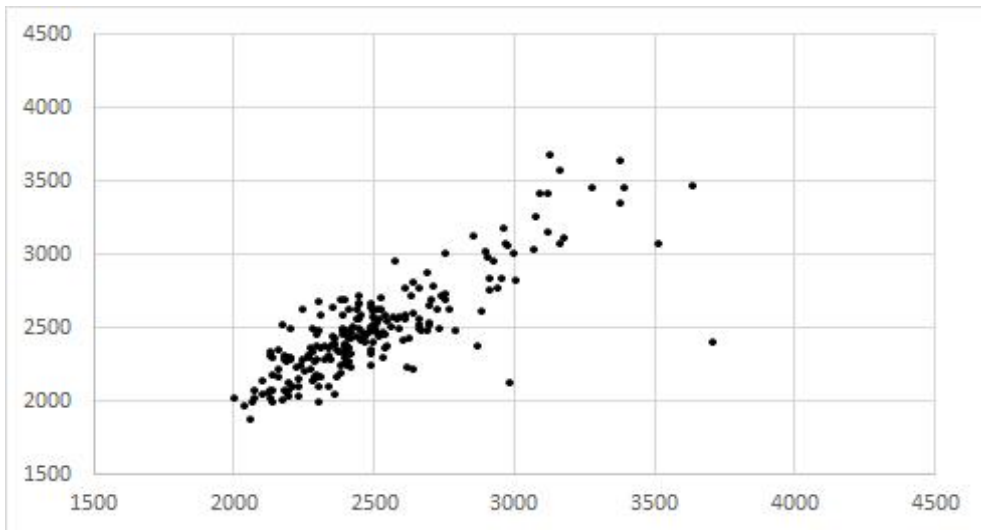
12) 본 논문에서는 GOMS 2005년, 2010년, 2015년 졸업생 자료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2005년 졸업생의 경우 GOMS 자료에 대학 졸업 직전 희망임금에 대한 설문 조사가 조사되고 있지 않아서 이와 관련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2010년 졸업생의 경우에는 GOMS 조사가 1차 조사만 실시되고 2차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13) 각 대학별 수능성적은 김영철(2015)에서 사용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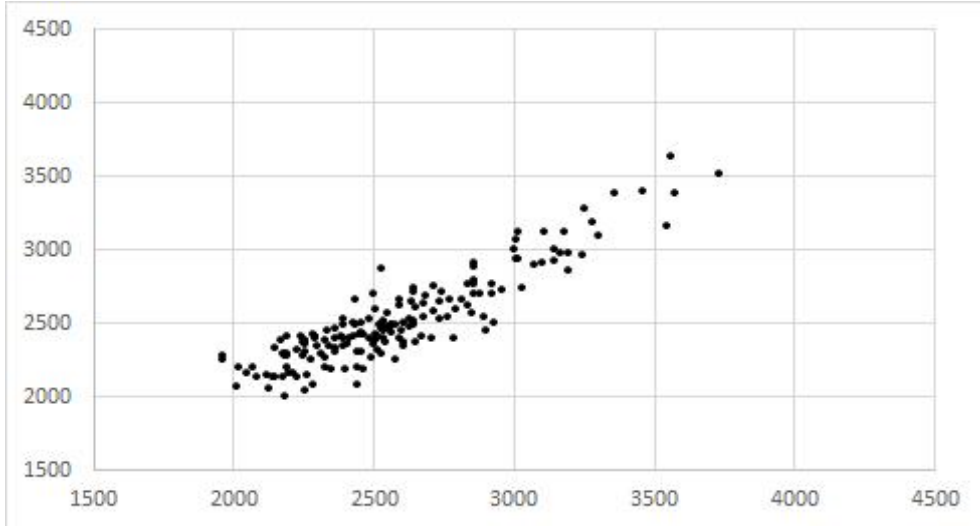
< 6> 대학별 희망임금과 실제 임금 (2010년 2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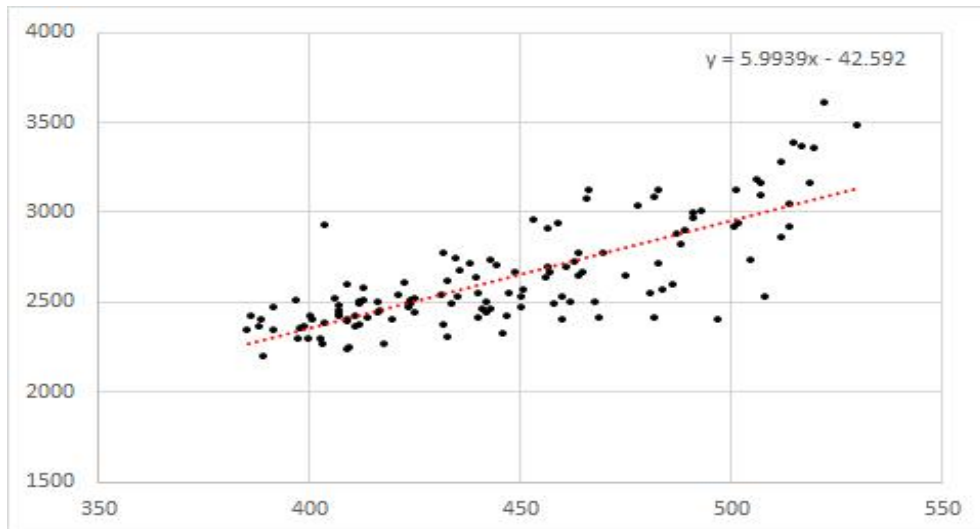
<그림 7> 대학별 희망임금과 실제 임금 (2015년 1차 조사)



< 8> 2010년 졸업생과 2015년 졸업생의 대학별 희망임금



<그림 9> 대학별 수능성적과 희망임금 (2015년 1차 조사)



(3) 방식

논문에서는 우선 다음 (2) 식에 기초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etD = \alpha \times sexd_i + \beta \times age_i + HWage_i + X_i\gamma + V_i\delta + \sum_i Major_i + \epsilon_i \quad (2)$$

우선 종속변수 $NeetD_i$ 는 “귀하는 지난 1주간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는 문항에 취업(일하였음, 일 시휴직, 발령대기)이나 교육(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을 제외한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다. 여기에는 구직활동, 취업-진학준비(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취업준비, 진학준비), 육아·가사, 기타 활동(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 준비, 쉬었음, 기타)이 포함된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변수로 대학 졸업 직전 최소 희망임금의 로그값 $HWage_i$ 를 이용한다. X_i 는 대학 졸업 평점이나 토익 성적, 자격증 수 같은 희망임금 이외에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변수들 벡터이다. 그리고 V_i 는 개인의 가정환경을 나타내주는 변수들의 벡터이다. 이는 아버지의 학력과 대학 입학 당시 가구소득과 같은 변수들로 구성된다.¹⁴⁾

다음으로 (3) 식과 같이 희망임금의 로그값 $HWage_i$ 를 다음 두 변수로 분해하여 회귀식을 다시 추정한다.

$$NeetD_i = \alpha \times sexd_i + \beta \times age_i + MeanHWage_i + ResHWage_i + X_i\gamma + V_i\delta + \sum_i Major_i + \epsilon_i \quad (3)$$

$MeanHWage_i$ 는 개인이 졸업한 대학의 평균적인 희망임금의 로그값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서열화된 대학 구조 하에서 어떤 대학을 졸업했는지 여부는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주요한 신호 역할을 한다. 평판이 좋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일수록 인적자본(human capital) 량과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 량이 크고, 기업에서 발휘하는 생산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우수한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이 NEET 확률을 더 높이는지 혹은 낮추는지를 점검하기로 한다.

동일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희망임금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같은 대학 내에서도 졸업생 간의 능력의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고, 혹은 개인에 따라 주관적인 취업 눈높이가 다를 수도 있다. 식에서 $ResHWage_i$ 변수는 개인의 로그 희망임금과 졸업 대학의 평균적인 로그 희망임금 간의 편차를 나타낸다. 만약 이 값이 주관적 취업 눈높이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NEET 확률을 높이는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인의 로그 희망임금이 대학 평균치보다 높은 편차가 그만큼 같은 대학 내에서도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면, NEET 확률과의 관련성은 미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높은 능력이 NEET 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이론적으로 확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마다 졸업생의 성과 연령 그리고 전공 구성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MeanHWage_i$ 와 $ResHWage_i$ 변수 추정 시 다음 (4) 식과 같은 회귀분석을 이용한다.

$$HWage_{ij} = \alpha \times sexd_i + \beta \times age_i + \sum_i Major_i + \sum_j College + \epsilon_{ij} \quad (4)$$

14) 회귀분석 식에서 sex_i 는 남성 더미변수이고, age_i 는 연령을 나타낸다. $Major_i$ 는 대분류 전공계열이며, ϵ_i 는 오차항이다.

성과 연령 그리고 전공계열과 더불어 졸업 대학에 대한 더미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통제한다. 이 식의 결과를 기초로 25세 인문계열 여성 졸업생이 해당 대학을 졸업했을 때 회귀식 결과로 기대되는 평균적인 로그 희망임금 수준을 추정하여 $MeanHWage_i$ 변수 값으로 삼는다. 그리고 (3) 식의 잔차값을 $ResHWage_i$ 변수로 사용한다.

2010년도 이전에는 GOMS 자료에 대학생들이 졸업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1차 조사와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2차 조사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2005년 자료와 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 간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양상을 추적한다. 1차 조사 시점에서 NEET 상태에 있었던 청년들이 2년 후 2차 조사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1차 조사에서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2차 조사 시 NEET 상태로 남아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항은 1차 조사 시 NEET 상태였던 청년과 1차 조사 시에는 취업해 있었지만 2차 조사 시 새로 NEET 가 된 청년 간에 어떠한 차별점 혹은 공통점이 존재하는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GOMS 2010년 졸업생 자료를 이용하여 1차 조사 시 NEET 상태에 있던 그룹, 2차 조사 시 새로 NEET 상태가 된 그룹, 그리고 1-2차 조사 시 모두 비NEET 상태인 그룹으로 표본을 분리한 뒤, 다항로짓 분석을 통해 세 그룹 간 능력과 가정형편 등의 차별성을 분석한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은 앞에서의 분석과 동일하다.

4절 NEET 결정 요인

(1) 졸업자의 경제활동 상황

우선 대학 졸업자 중 NEET 상태에 있는 청년의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해 보자. 각년도 GOMS 자료에서 지난 1주간의 활동을 기초로 경제활동 상황을 분석·정리한 것이 다음 <표 1>이다. 표를 보면 대학을 졸업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한 1차 조사 결과 NEET 비율이 2005년 졸업생의 경우 14.6%, 2010년 졸업생은 15.5%, 그리고 2015년 졸업생은 19.5%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NEET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NEET 상태에 있는 청년 중 절반 이상은 취업준비 혹은 진학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구직활동을 하거나 쉬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¹⁵⁾ 2010년 졸업생이 비해 2015년 졸업생의 경우 취업준비 혹은 진학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 2.2%p 증가하였고, 쉬었음 혹은 기타의 비율도 1.5%p 증가하였다.

졸업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1차 조사와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2차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NEET의 비율이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졸업생과 2010년 졸업생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1차 조사 이후 2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조사에서도 NEET의 비율은 1~2%p 하락하는데 그쳐, 13~14%의 대졸자가 졸업 후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15) 지난 1주간의 주된 활동이 “취업을 위한 학원 수강(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NEET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개념 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역시 학원·기관에 다니지 않으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계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취업 애로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NEET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2015년 현재 이들 규모는 전체 대학 졸업자 중 3.0%이다.

NEET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NEET 내부 구성은 다소 변화하고 있다. 1-2차 조사 기간 동안 취업준비 혹은 진학준비자의 비율은 3-4%p 감소한 반면, 육아 혹은 가사 종사자의 비율은 2%p 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표 1〉 대학 졸업자의 경제활동 상황

	1차조사			2차조사	
	2005년	2010년	2015년	2005년	2010년
일하였음	334,612 (77.4)	277,001 (76.9)	299,874 (71.5)	360,589 (83.1)	299,263 (83.0)
대학/대학원 재학	34,535 (8.0)	27,336 (7.6)	37,607 (9.0)	14,479 (3.3)	10,955 (3.0)
니트	62,977 (14.6)	55,904 (15.5)	81,668 (19.5)	58,747 (13.5)	50,535 (14.0)
구직활동	8,043 (1.9)	11,544 (3.2)	15,731 (3.8)	9,191 (2.1)	9,984 (2.8)
취업준비, 진학준비	37,582 (8.7)	31,462 (8.7)	45,696 (10.9)	22,155 (5.1)	21,779 (6.0)
육아, 가사	5,882 (1.4)	3,107 (0.9)	2,437 (0.6)	13,746 (3.2)	9,497 (2.6)
쉬었음, 기타	11,469 (2.7)	9,792 (2.7)	17,804 (4.2)	13,655 (3.1)	9,275 (2.6)
전체	432,124 (100.0)	360,240 (100.0)	419,148 (100.0)	433,815 (100.0)	360,753 (100.0)

일반대와 전문대 간에는 NEET 비율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 〈표 2〉와 〈표 3〉을 보면 일반대 졸업생이든 전문대 졸업생이든 NEET 비율이 높은 값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일반대보다는 오히려 전문대의 경우 NEET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차 조사에서는 2010년과 2015년 졸업생 자료에서 전문대가 일반대에 비해 졸업생의 NEET 비율이 1%p 정도 더 높은 반면, 2차 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2005년 졸업생은 2.5%p 2010년 졸업생은 3.5%p로 보다 확대되고 있다. 2차 조사의 경우 NEET 내부 구성을 보면 전문대 졸업생은 일반대 졸업생에 비해 취업준비 혹은 진학준비 비율은 1%p 가량 더 낮지만, 구직활동이나 육아-가사 그리고 쉬었음-기타의 비율이 각각 1-2%p씩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 졸업 직후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률이 일반대 졸업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약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대학 졸업자의 경제활동 상황 (일반대)

	1차조사			2차조사	
	2005년	2010년	2015년	2005년	2010년
일하였음	174,335 (74.2)	160,510 (75.3)	177,221 (69.3)	195,841 (83.4)	179,266 (83.9)
대학/대학원 재학	26,194 (11.2)	20,581 (9.7)	29,313 (11.5)	9,862 (4.2)	7,436 (3.5)
니트	34,293 (14.6)	31,954 (15.0)	49,223 (19.2)	29,045 (12.4)	26,901 (12.6)
구직활동	4,043 (1.7)	6,469 (3.0)	9,241 (3.6)	3,662 (1.6)	4,833 (2.3)
취업준비, 진학준비	22,882 (9.7)	20,537 (9.6)	30,024 (11.7)	13,323 (5.7)	13,682 (6.4)
육아, 가사	2,055 (0.9)	1,180 (0.6)	1,586 (0.6)	5,967 (2.5)	4,190 (2.0)
쉬었음, 기타	5,313 (2.3)	3,768 (1.8)	8,372 (3.3)	6,093 (2.6)	4,196 (2.0)
전체	234,822 (100.0)	213,045 (100.0)	255,757 (100.0)	234,748 (100.0)	213,603 (100.0)

〈표 3〉 대학 졸업자의 경제활동 상황 (전문대)

	1차조사			2차조사	
	2005년	2010년	2015년	2005년	2010년
일하였음	160,277 (81.2)	116,491 (79.1)	122,653 (75.1)	164,748 (82.8)	119,997 (81.5)
대학/대학원 재학	8,341 (4.2)	6,754 (4.6)	8,294 (5.1)	4,617 (2.3)	3,519 (2.4)
니트	28,685 (14.5)	23,950 (16.3)	32,445 (19.9)	29,702 (14.9)	23,634 (16.1)
구직활동	4,000 (2.0)	5,075 (3.4)	6,489 (4.0)	5,529 (2.8)	5,151 (3.5)
취업준비, 진학준비	14,700 (7.5)	10,924 (7.4)	15,673 (9.6)	8,832 (4.4)	8,097 (5.5)
육아, 가사	3,828 (1.9)	1,927 (1.3)	851 (0.5)	7,779 (3.9)	5,308 (3.6)
쉬었음, 기타	6,156 (3.1)	6,024 (4.1)	9,431 (5.8)	7,562 (3.8)	5,079 (3.5)
전체	197,302 (100.0)	147,195 (100.0)	163,391 (100.0)	199,066 (100.0)	147,1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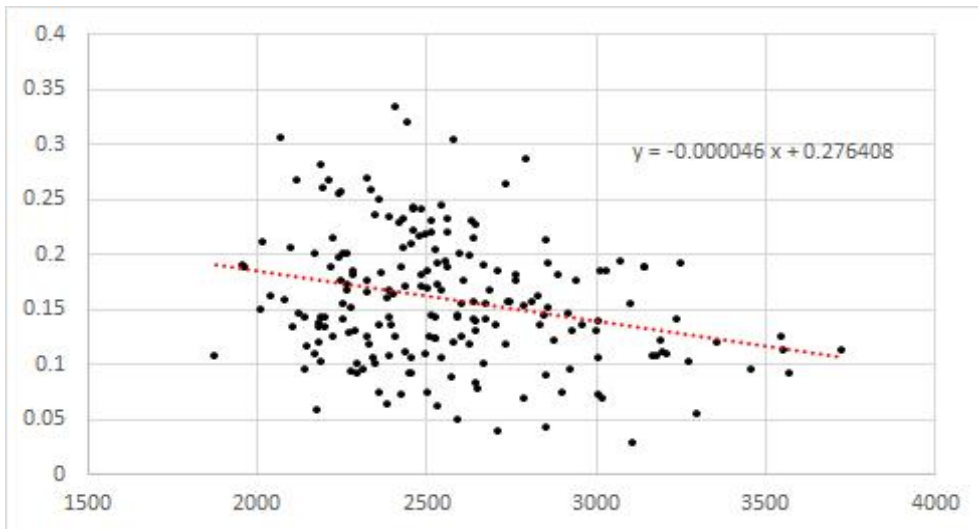
(2) 평균 희망임금과 NEET 비율

설명했듯이 능력이 우수한 사람일수록 NEET 상태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지 혹은 오히려 더 낮아지는지 여부는 이론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능력이 우수할수록 임금 수준이 높은 좋은 직장에 대한 제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NEET 상태가 될 확률이 낮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가파른 무차별곡선을 가짐으로써 유보임금이 높아 NEET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대졸자 계층 내에서는 능력과 NEET 확률 간에 어떠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을까?

다음 그림들은 각 대학별로 졸업생들의 졸업 직전 최소 희망임금에 대한 평균값과 해당 대학의 NEET 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¹⁶⁾ <그림 10>과 <그림 11>은 2010년 1차 조사와 2차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고, <그림 12>는 2015년 1차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어떤 그림을 보든 대학별 희망임금과 NEET 비율은 대체로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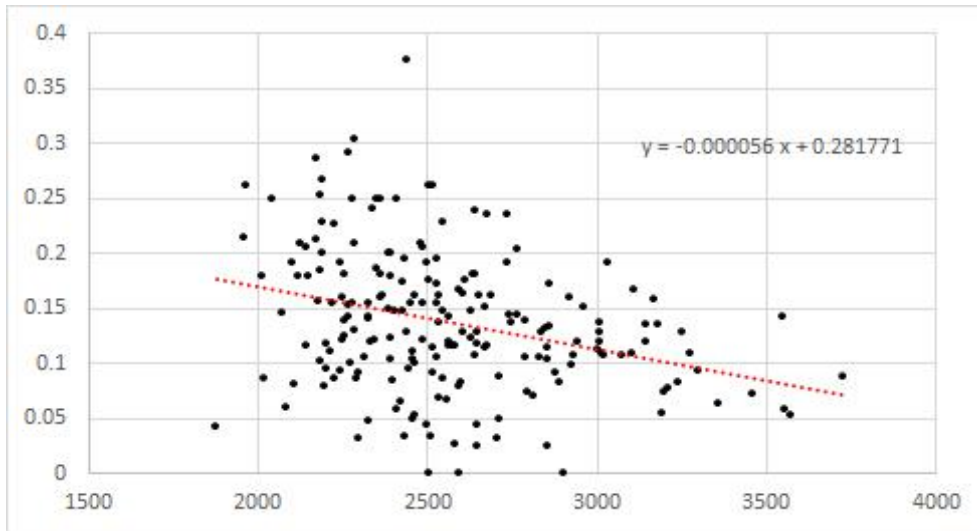
앞의 제3절에서 설명하였듯이 희망임금의 평균값이 높은 대학일수록 실제 취업한 졸업생들의 임금 수준도 높았고, 입학 당시 수능성적도 높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학별 희망임금의 평균값을 해당 대학 졸업생의 평균적인 능력 수준을 나타내주는 지표로 볼 수 있는 근거이다. 따라서 대학별 희망임금과 NEET 비율 간에 역의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수한 능력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대학일수록 NEET 비율도 더 감소하는 추세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대 졸업생에 비해 일반대 졸업생이 NEET 비율이 더 낮다는 앞에서의 분석 결과와 더불어 능력과 NEET 확률 간에 마이너스 관련성을 시사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 10> 대학별 최소 희망임금과 NEET 비율 (2010년 1차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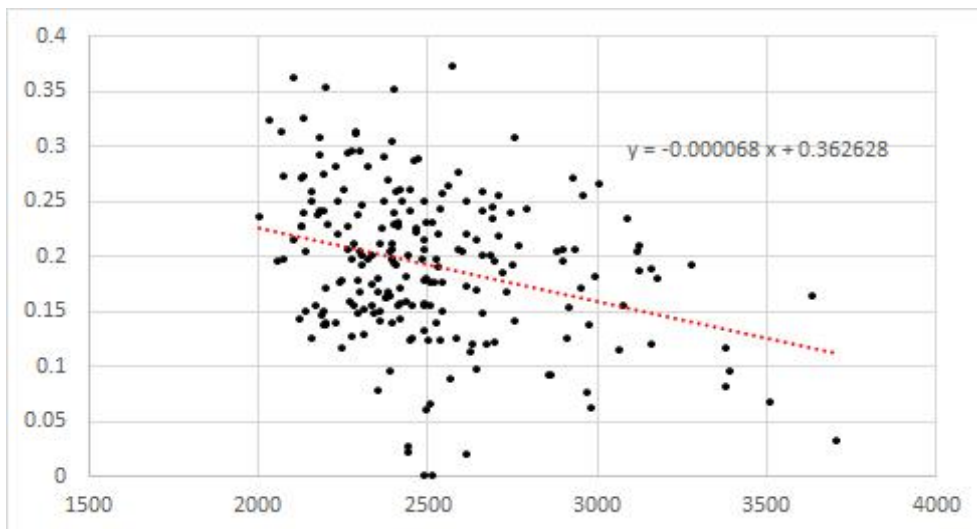


16) 이 경우에도 1차 조사 시 표본 수가 25명 이상인 대학만으로 한정하였다.

< 11> 대학별 최소 희망임금과 NEET 비율 (2010년 2차조사)



<그림 12> 대학별 최소 희망임금과 NEET 비율 (2015년 1차조사)



(3) 결과

능력과 관련된 변수 그리고 가정환경과 관련된 변수들이 NEET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다음 <표 4>는 2010년 졸업생의 1차 조사 자료를, <표 5>는 2차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며, <표 6>은 2015년 졸업생의 1차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가정환경 관련 변수들을 보면 어느 자료에서나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 졸업자 개인의 NEET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대학 입학 당시 가구소득은 1차 조사에서 그리고 일반대 졸업생 자료에서 대체로 마이너스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졸업생 개인의 예산제약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하는 소득효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NEET 확률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분석 결과는 기대와는 달리 NEET 확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구소득 변수가 회귀분석에서 통제하지 못한 개인의 능력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누락변수의 문제) 대학 입학 당시 가구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유전적 혹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개인의 능력이 보다 우수할 가능성이 있다. (인적자본 효과) 또 부유한 가정일수록 부모 세대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발해 자녀의 취업이 유리했을 수 있다. (사회적자본 효과) 따라서 가구소득이 높은 자녀일수록 능력이 우수하고, 이로 인해 소득효과에도 불구하고 NEET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가구소득 변수는 2차 조사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져, 개인의 NEET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학 졸업 후 초기 단계에 국한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¹⁷⁾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보다 이공계열 졸업생의 NEET 확률이 유의하게 더 낮은 모습을 뚜렷이 보여준다.¹⁸⁾ 2010년 졸업생의 경우 1차 조사보다는 2차 조사에서 이러한 경향은 강화되고 있고, 또 2010년 졸업생에 비해 2015년 졸업생의 경우 같은 1차 조사라고 하더라도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 간 NEET 확률의 격차는 보다 확대되고 있다.¹⁹⁾ 인문·사회계열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경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항은 능력이 높은 대졸자일수록 NEET 확률이 유의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하는 점이다. 회귀분석 결과들을 보면 대체로 능력이 높을수록 NEET 확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졸업생의 1차 조사와 2차 조사 그리고 2015년 졸업생의 1차 조사에서 모두 졸업평점이 높을수록, 자격증 수가 많을수록 NEET 확률은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⁰⁾ 토익 성적이 높을수록 NEET 확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마이너스 값을 나타낸 것은 2010년 졸업생 2차 조사 뿐이었다.²¹⁾

17) <표 4>에 정리된 2010년 졸업생 1차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부모의 소득이 없거나 부모가 안계신 경우 대학 졸업자의 NEET 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정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NEET 확률이 감소하는 소득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18) 전문대의 경우 사회계열과 교육계열 졸업생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인문계열과 통합하여 이를 기준 변수로 삼았다.

19) 교육계열의 경우 2010년 졸업생 1차 조사에서는 오히려 플러스의 값을 보이고 있고, 2015년 졸업생 자료에서는 일반대 졸업생으로 한정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계열 졸업자의 경우 대학 졸업 후 초기 단계에는 임용고사 준비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20) 졸업평점 변수는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이다.

21) GOMS 조사의 설문에는 “귀하가 최근 2년 이내에 공식기관을 통해서 취득한 가장 좋은 영어점수는 몇 점입니까?”라는 문항이 있는데, 여기서 토익 성적을 기록한 값을 변수로 삼았다. (단위는 100점) 이

논문에서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 졸업 직전 희망임금 수준은 어느 연도에서나 NEET 확률에 유의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표의 Model 1에 제시되어 있는 분석 결과를 보면 희망임금이 10% 높은 사람일수록 NEET 확률이 2010년 졸업생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1.4%p, 2차 조사에서는 1.0%p, 그리고 2015년 졸업생의 경우에는 0.7%p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²²⁾

희망임금 변수를 분해하여 개인이 졸업한 대학의 평균적인 희망임금 수준과 이러한 졸업 대학 평균치로 부터의 개인적 편차를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로 사용할 경우(Model 2), 모든 자료에서 두 변수 모두 유의한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대와 전문대 졸업생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전문대 졸업생의 경우에는 대학별 희망임금 평균치가 NEET 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Model 4) 일반대와 달리 전문대의 경우에는 내부에서의 대학 서열과 졸업생의 능력 편차가 크지 않음을 시사해준다.²³⁾

앞 절에서는 단순한 그래프 작업을 통해 각 대학별로 희망임금의 평균값과 NEET 비율 간에 마이너스 상관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는데, 이처럼 회귀분석을 통해 개인의 인적속성과 가정환경 그리고 다양한 능력 관련 변수들을 통제하더라도 희망임금의 평균값이 높은 대학일수록 NEET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희망임금의 잔차 역시 NEET 확률에 대체로 유의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평균적인 희망임금보다 개인의 희망임금이 더 높다는 것은 해당 대학 내에서 개인의 능력이 평균적인 수준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한 편으로 개인의 눈높이가 객관적인 능력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나타내 줄 수도 있다. 여기서의 분석 결과처럼 희망임금의 잔차가 마이너스 값을 보이는 것은 후자의 과도한 눈높이 효과가 전자의 개인 능력 효과보다 최소한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가정하듯이 희망임금이 개인의 능력 수준을 나타내주는 대리변수로 본다면, 여기서의 분석 결과는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대학의 졸업생일수록 그리고 같은 대학 내에서도 보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NEET 확률이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2010년 졸업생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물론 2차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5년 졸업생에게서도 다시 확인되고 있다. 대학 내부로 본다면 NEET의 문제는 하위권 대학일수록, 그리고 상대적으로 능력이 뒤처지는 졸업생일수록 보다 더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기간 동안 영어 시험을 본적이 없거나 토플이나 텡스 등 다른 영어 성적을 기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이 변수값을 토플 성적 평균값으로 대체한 뒤, 토플 성적을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를 추가로 통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표들을 보면 토플 성적 결과를 보고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는 2010년과 2015년 졸업생 1차 조사에서 플러스 값을 보였다.

22) 표에 제시된 희망임금 관련 변수는 모두 로그값을 나타내므로 퍼센트 변화로 해석된다.

23) 2015년 졸업생 1차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일반대의 경우 희망임금의 잔차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대학별 희망임금 변수의 계수값은 2010년 졸업생 조사보다 더 큰 절대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NEET 여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010년 1차조사)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전체	일반대	전문대
남자=1		-0.012 (0.008)	-0.026*** (0.008)	-0.029*** (0.010)	-0.031** (0.015)
연령		-0.003* (0.002)	-0.005*** (0.002)	-0.002 (0.002)	-0.006** (0.003)
희망임금		-0.140*** (0.013)			
졸업대학 평균 희망임금			-0.166*** (0.028)	-0.158*** (0.035)	-0.049 (0.081)
희망임금 잔차			-0.135*** (0.014)	-0.139*** (0.017)	-0.125*** (0.025)
졸업평점		-0.026*** (0.004)	-0.027*** (0.004)	-0.028*** (0.005)	-0.026*** (0.007)
토익성적		-0.004 (0.004)	-0.004 (0.004)	-0.002 (0.004)	-0.004 (0.011)
토익성적 존재=1		0.030*** (0.007)	0.032*** (0.007)	0.031*** (0.008)	0.046* (0.026)
자격증 수		-0.006*** (0.002)	-0.007*** (0.002)	-0.007*** (0.002)	-0.006** (0.003)
전공계열	사회	0.030*** (0.011)	0.028** (0.011)	0.024* (0.014)	
	교육	0.087*** (0.017)	0.088*** (0.017)	0.086*** (0.019)	
	공학	-0.020** (0.010)	-0.026** (0.010)	-0.037*** (0.014)	-0.007 (0.016)
	자연	-0.011 (0.012)	-0.010 (0.012)	-0.010 (0.015)	-0.019 (0.022)
	의약	-0.057*** (0.012)	-0.079*** (0.011)	-0.088*** (0.016)	-0.071*** (0.016)
	예체능	0.006 (0.012)	0.010 (0.012)	-0.012 (0.017)	0.038** (0.018)
아버지 학력	고등학교	0.001 (0.008)	0.001 (0.008)	0.007 (0.011)	-0.007 (0.014)
	(전문)대학이상	0.007 (0.009)	0.008 (0.010)	0.013 (0.012)	0.003 (0.017)
가구소득	300~400만원	-0.003 (0.008)	-0.003 (0.008)	0.001 (0.010)	-0.010 (0.014)
	400~500만원	-0.005	-0.005	-0.005	0.000

	(0.010)	(0.010)	(0.011)	(0.018)
500~700	-0.024**	-0.024**	-0.021*	-0.031
	(0.011)	(0.011)	(0.013)	(0.022)
700~1000만원	-0.036**	-0.035**	-0.036**	-0.027
	(0.015)	(0.015)	(0.016)	(0.035)
1000만원 이상	-0.048***	-0.048***	-0.055***	-0.013
	(0.016)	(0.016)	(0.017)	(0.040)
소득없음, 부모 안계심	-0.066***	-0.066***	-0.083***	-0.056
	(0.023)	(0.023)	(0.029)	(0.035)
상수항	1.591***	1.833***	1.704***	0.964
	(0.100)	(0.210)	(0.272)	(0.625)
관측치 수	13,147	13,147	9,008	4,139
R2	0.0293	0.0293	0.0324	0.0266

: Linear Probability Model 분석 결과임. 괄호 안은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 1%, ** 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5〉 NEET 여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010년 2차조사)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전체	일반대	전문대
남자=1		-0.080*** (0.009)	-0.092*** (0.009)	-0.090*** (0.010)	-0.100*** (0.017)
연령		0.005*** (0.002)	0.004** (0.002)	0.005* (0.003)	0.005 (0.003)
희망임금		-0.104*** (0.013)			
졸업대학 평균 희망임금			-0.177*** (0.029)	-0.158*** (0.035)	-0.120 (0.086)
희망임금 잔차			-0.088*** (0.015)	-0.086*** (0.018)	-0.080*** (0.026)
졸업평점		-0.012*** (0.004)	-0.014*** (0.004)	-0.020*** (0.005)	-0.002 (0.007)
토익성적		-0.008** (0.004)	-0.006* (0.004)	-0.011** (0.004)	0.006 (0.011)
토익성적 존재=1		-0.006 (0.007)	-0.001 (0.007)	0.004 (0.008)	-0.012 (0.028)
자격증 수		-0.007*** (0.002)	-0.007*** (0.002)	-0.006*** (0.002)	-0.009*** (0.003)
전공계열	사회	-0.019 (0.012)	-0.018 (0.012)	-0.020 (0.015)	
	교육	-0.030* (0.016)	-0.025 (0.016)	-0.026 (0.019)	
	공학	-0.060*** (0.011)	-0.063*** (0.011)	-0.067*** (0.015)	-0.058*** (0.017)
	자연	-0.039*** (0.013)	-0.035*** (0.013)	-0.037** (0.016)	-0.042* (0.024)
	의약	-0.065*** (0.013)	-0.082*** (0.013)	-0.120*** (0.017)	-0.053*** (0.019)
	예체능	-0.041*** (0.013)	-0.037*** (0.013)	-0.050*** (0.018)	-0.023 (0.020)
아버지 학력	고등학교	0.001 (0.009)	0.002 (0.009)	-0.001 (0.011)	0.007 (0.014)
	(전문)대학이상	-0.008 (0.010)	-0.005 (0.010)	-0.002 (0.011)	-0.005 (0.019)
가구소득	300~400만원	-0.004 (0.008)	-0.004 (0.008)	-0.013 (0.010)	0.014 (0.015)
	400~500만원	-0.002	-0.002	-0.013	0.025

	(0.010)	(0.010)	(0.011)	(0.019)
500~700	0.003	0.004	-0.003	0.019
	(0.011)	(0.011)	(0.013)	(0.025)
700~1000만원	-0.012	-0.011	-0.024	0.038
	(0.015)	(0.015)	(0.016)	(0.044)
1000만원 이상	-0.016	-0.016	-0.023	0.002
	(0.017)	(0.017)	(0.018)	(0.041)
소득없음, 부모 안계심	0.020	0.019	-0.012	0.051
	(0.030)	(0.030)	(0.038)	(0.048)
상수항	1.067***	1.640***	1.572***	1.002
	(0.104)	(0.214)	(0.273)	(0.659)
관측치 수	11,153	11,153	7,763	3,390
R2	0.0318	0.0324	0.0352	0.0309

: Linear Probability Model 분석 결과임. 괄호 안은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 1%, ** 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표 6〉 NEET 여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015년 1차조사)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전체	일반대	전문대
남자=1		0.000 (0.009)	-0.009 (0.009)	-0.025** (0.010)	0.012 (0.017)
연령		-0.002 (0.002)	-0.001 (0.002)	0.007** (0.003)	-0.011*** (0.004)
희망임금		-0.067*** (0.015)			
졸업대학 평균 희망임금			-0.240*** (0.035)	-0.223*** (0.042)	-0.130 (0.125)
희망임금 잔차			-0.038** (0.016)	-0.023 (0.019)	-0.072** (0.032)
졸업평점		-0.015*** (0.003)	-0.015*** (0.003)	-0.015*** (0.003)	-0.014*** (0.005)
토익성적		-0.005 (0.004)	-0.001 (0.004)	-0.005 (0.004)	-0.006 (0.011)
토익성적 존재=1		0.024*** (0.008)	0.034*** (0.008)	0.038*** (0.009)	-0.003 (0.025)
자격증 수		-0.005** (0.003)	-0.006** (0.003)	-0.003 (0.003)	-0.011*** (0.004)
전공계열	사회	0.012 (0.014)	0.014 (0.014)	-0.007 (0.017)	
	교육	-0.023 (0.016)	-0.011 (0.016)	-0.027 (0.019)	
	공학	-0.054*** (0.012)	-0.054*** (0.012)	-0.080*** (0.015)	-0.020 (0.019)
	자연	-0.030** (0.013)	-0.024* (0.013)	-0.041** (0.017)	-0.012 (0.024)
	의약	-0.096*** (0.014)	-0.110*** (0.014)	-0.118*** (0.020)	-0.089*** (0.019)
	예체능	0.016 (0.014)	0.021 (0.014)	-0.021 (0.019)	0.077*** (0.022)
아버지 학력	고등학교	0.015 (0.012)	0.016 (0.012)	0.022 (0.015)	0.006 (0.020)
	(전문)대학이상	0.017 (0.013)	0.022* (0.013)	0.028* (0.015)	0.016 (0.022)
가구소득	300~400만원	-0.009 (0.010)	-0.009 (0.010)	-0.012 (0.012)	0.000 (0.017)
	400~500만원	-0.013	-0.013	-0.009	-0.021

	(0.010)	(0.010)	(0.012)	(0.019)
500~700	-0.020*	-0.019*	-0.020	-0.016
	(0.012)	(0.012)	(0.014)	(0.023)
700~1000만원	-0.047***	-0.043***	-0.056***	0.018
	(0.015)	(0.015)	(0.017)	(0.040)
1000만원 이상	-0.048***	-0.045**	-0.056***	0.025
	(0.018)	(0.018)	(0.019)	(0.047)
소득없음, 부모 연계심	-0.021	-0.020	0.016	-0.102*
	(0.036)	(0.037)	(0.046)	(0.057)
상수항	0.954***	2.205***	1.929***	1.628*
	(0.119)	(0.259)	(0.325)	(0.952)
관측치 수	13,050	13,050	9,268	3,782
R2	0.0152	0.0170	0.0183	0.0253

: Linear Probability Model 분석 결과임. 괄호 안은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 1%, ** 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5절 동태적 변화 양상

(1) 1-2 조사 간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졸업생들은 졸업 후 곧바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NEET 상태에 머물기도 한다. 그렇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졸자의 경제활동 상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이 절에서는 2010년까지 GOMS 조사에서 동일인을 대상으로 대학 졸업 후 1년 6개월 시점의 1차 조사와 3년 6개월 시점의 2차 조사를 시행해 왔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 간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기로 한다. 분석 자료는 2005년 졸업생과 2010년 졸업생에 대한 GOMS 조사이며, 희망임금의 변수가 조사된 2010년 졸업생 자료에 대해서는 다항로지 분석을 실시한다.

다음 <표 7>과 <표 8>은 2005년 졸업생과 2010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1차 조사와 2차 조사 시 경제활동 상태를 비교한 것이다.²⁴⁾ 우선 2005년 졸업생 자료를 보면 1차 조사 시 취업을 하고 있던 사람 중 2년 후인 2차 조사 시점에서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89.1%, 학업 중인 사람은 1.3%, 그리고 NEET 상태로 변화한 사람은 9.5%였다. 1차 조사에서 대학/대학원에 재학하며 학업 중이었던 사람 중 2차 조사에서 NEET로 변화한 사람의 비율은 14.0%였다. 반면 1차 조사에서 NEET 상태에 있던 사람 중 2차 조사에서도 NEET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34.2%로, 1/3 정도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2010년 졸업생 자료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확인된다. 1차 조사 시 취업 중인 사람과 대학/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이 2차 조사에서 NEET가 되는 비율은 각각 10.4%와 14.3%인 반면, 1차 조사 시 NEET였던 사람이 2차 조사에서도 NEET 상태로 남은 비율은 31.7%였다.

24) 2차 조사의 개인 가중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7〉 1차조사와 2차조사 간 경제활동상태 변화 (2005년)

2 1차조사	일하였음	대학/대학원 재학	니트	구직활동	취업준비, 진학준비	육아, 가사	쉬었음, 기타	전체
일하였음	298,106 (89.1)	4,441 (1.3)	31,891 (9.5)	6,121 (1.8)	10,125 (3.0)	7,494 (2.2)	8,151 (2.4)	334,439 (100.0)
대학/대학원 재학	22,934 (64.7)	7,543 (21.3)	4,963 (14.0)	892 (2.5)	2,541 (7.2)	339 (1.0)	1,192 (3.4)	35,440 (100.0)
니트	39,549 (61.9)	2,494 (3.9)	21,893 (34.2)	2,179 (3.4)	9,489 (14.8)	5,914 (9.2)	4,312 (6.7)	63,935 (100.0)
구직활동	6,012 (73.9)	209 (2.6)	1,914 (23.5)	341 (4.2)	507 (6.2)	141 (1.7)	926 (11.4)	8,135 (100.0)
취업-진학준비	24,638 (64.6)	1,951 (5.1)	11,552 (30.3)	1,494 (3.9)	7,546 (19.8)	593 (1.6)	1,919 (5.0)	38,141 (100.0)
육아, 가사	1,891 (29.6)	0 (0.0)	4,504 (70.4)	0 (0.0)	60 (0.9)	4,396 (68.7)	48 (0.7)	6,395 (100.0)
쉬었음, 기타	7,007 (62.2)	334 (3.0)	3,923 (34.8)	344 (3.1)	1,376 (12.2)	784 (7.0)	1,419 (12.6)	11,264 (100.0)
전체	360,589 (83.1)	14,479 (3.3)	58,747 (13.5)	9,191 (2.1)	22,155 (5.1)	13,746 (3.2)	13,655 (3.1)	433,815 (100.0)

〈표 8〉 1차조사와 2차조사 간 경제활동상태 변화 (2010년)

2 1차조사	일하였음	대학/대학원 재학	니트	구직활동	취업준비, 진학준비	육아, 가사	쉬었음, 기타	전체
일하였음	244,709 (88.4)	3,488 (1.3)	28,705 (10.4)	6,266 (2.3)	10,367 (3.7)	5,940 (2.1)	6,132 (2.2)	276,902 (100.0)
대학/대학원 재학	18,048 (66.4)	5,254 (19.3)	3,891 (14.3)	1,013 (3.7)	2,116 (7.8)	242 (0.9)	520 (1.9)	27,193 (100.0)
니트	36,506 (64.4)	2,212 (3.9)	17,939 (31.7)	2,705 (4.8)	9,296 (16.4)	3,315 (5.9)	2,623 (4.6)	56,657 (100.0)
구직활동	8,994 (77.8)	96 (0.8)	2,466 (21.3)	600 (5.2)	1,116 (9.7)	188 (1.6)	563 (4.9)	11,556 (100.0)
취업-진학준비	19,750 (61.6)	1,796 (5.6)	10,501 (32.8)	1,422 (4.4)	7,311 (22.8)	496 (1.5)	1,271 (4.0)	32,047 (100.0)
육아, 가사	668 (21.7)	75 (2.4)	2,340 (75.9)	65 (2.1)	54 (1.8)	2,157 (70.0)	63 (2.1)	3,082 (100.0)
쉬었음, 기타	7,093 (71.1)	245 (2.5)	2,633 (26.4)	618 (6.2)	815 (8.2)	475 (4.8)	726 (7.3)	9,971 (100.0)
전체	299,263 (83.0)	10,955 (3.0)	50,535 (14.0)	9,984 (2.8)	21,779 (6.0)	9,497 (2.6)	9,275 (2.6)	360,753 (100.0)

예상대로 1차 조사에서 NEET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2차 조사에서 NEET 상태에 있을 확률이 1차 조사 시 취업해 있거나 학업 중이었던 사람이 2차 조사에서 NEET로 될 확률보다 더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차 조사 시 NEET가 아니었던 사람 중에서 2차 조사에서는 NEET로 변하는 경우도 빈번히 관찰된다. 2010년 졸업생의 경우 2차 조사 시 NEET 상태인 50,535명 중 1차 조사 시에는 취업 중이었던 사람은 28,705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한국 대졸자 NEET의 중요한 문제점은 그 절대적 규모가 크다는 점도 있지만, 졸업 후 1년 6개월은 물론 3년 6개월이 지나도 규모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기 NEET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기존에 NEET가 아니었던 사람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NEET로 변하는 현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1차 조사 시 NEET가 아니었던 사람이 왜 2차 조사에서는 NEET 상태로 변하는 것일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다음 <표 9>는 2010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1차 조사 시 NEET였던 사람, 2차 조사 시 신규로 NEET가 된 사람, 그리고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모두 NEET가 아닌 사람으로 구분한 뒤, 세 그룹의 희망임금 및 실제 임금 수준을 정리하였다. 표에서 위쪽 패널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며, 아래쪽 패널은 1차 조사 시 대학/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던 사람을 제외했을 때의 분석 결과이다.²⁵⁾ 아래쪽 패널을 보면 1차 조사 시 NEET 상태였던 그룹과 2차 조사 시 새로 NEET가 된 그룹의 대학 졸업 직전 희망임금의 평균값은 각각 2,358만원과 2,355만원으로 거의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 시 모두 NEET 상태가 아니었던 그룹의 희망임금 2,597만원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차 조사 시 새로 NEET가 된 그룹과 1-2차 조사에서 모두 NEET가 아니었던 그룹 간의 1차 조사 시 실제 임금도 각각 1,998만원과 2,360만원으로 크게 다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9> 1-2차조사 NEET 여부별 임금 비교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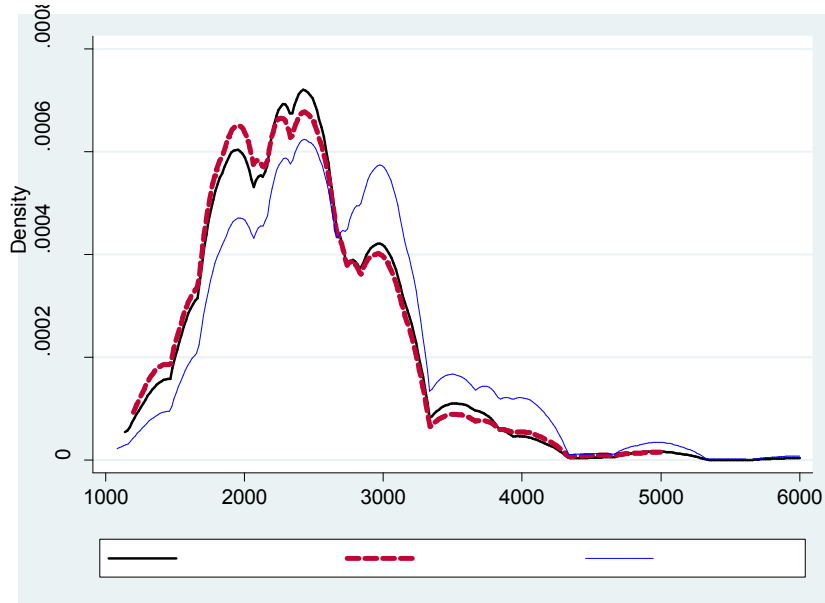
		졸업 직후 희망임금		1차조사 실제 임금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차 조사 NEET	2,358.4	(668.8)		
	2차 조사 NEET	2,372.8	(725.4)	1,996.3	(692.5)
	1-2차 비NEET	2,629.1	(790.6)	2,353.9	(898.9)
1차 조사 대학/대학원 재학 제외	1차 조사 NEET	2,358.4	(668.8)		
	2차 조사 NEET	2,355.3	(741.7)	1,998.3	(692.8)
	1-2차 비NEET	2,596.5	(778.5)	2,360.0	(898.5)

이들 그룹 간에 희망임금과 1차 조사 시 실제 임금이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 다음 <그림 13>과 <그림 14>이다. 우선 <그림 13>에서 희망임금의 분포를 보면 1차 조사 시 NEET 상태였던 그룹과 2차 조사 시 새로 NEET 상태가 된 그룹 간에 희망임금의 분포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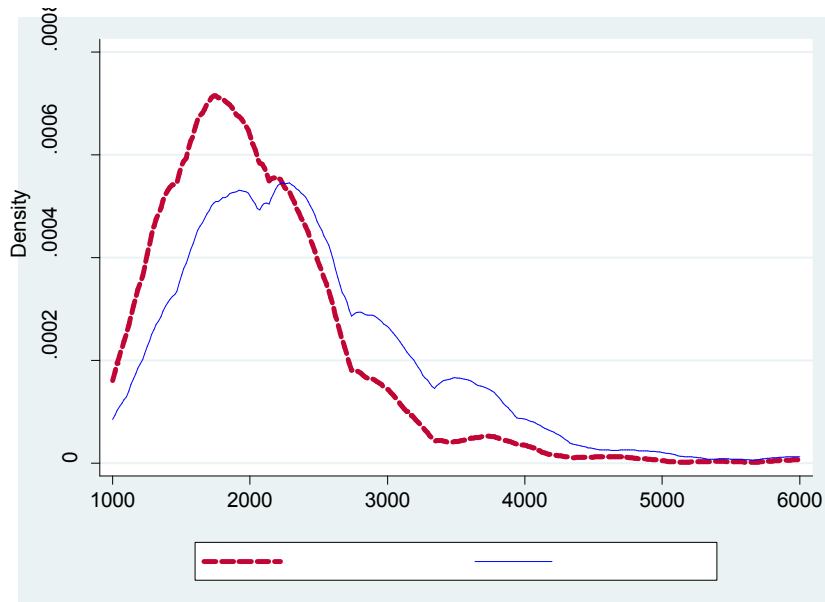
25) 여기서 분석의 핵심 내용이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NEET로 남는 경우에 대해 비교하는 것이므로, 대학/대학원 재학을 경유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분석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1차 조사 시 대학/대학원 재학자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2차 조사 시 모두 NEET 상태가 아니었던 그룹의 희망임금 분포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14>를 보면 2차 조사 시 새로 NEET가 된 그룹과 1-2차 조사 시 NEET가 아닌 그룹 간에 1차 조사 시 실제 임금 수준의 분포도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3> 1-2차 조사 NEET 여부별 희망임금 분포 (2010년)



<그림 14> 1-2차 조사 NEET 여부별 1차 조사 시 임금 분포 (2010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1차 조사 시 NEET 상태였던 그룹과 2차 조사 시 새로 NEET 상태가 된 그룹 간에는 졸업 직전 희망임금이 평균값은 물론 분포 또한 유사한 반면, 2차 조사 시 NEET 상태가 된 그룹과 1-2차 조사 시 모두 NEET가 아닌 그룹 간에는 희망임금이나 실제 임금이 평균값은 물론 분포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졸업 직전 희망임금이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대리변수라고 본다면, 주로 낮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1차 조사에서 NEET 상태에 머무는 경향이 있으며, 1차 조사에서 NEET가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역시 낮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2차 조사 시 NEET 상태로 변화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항로짓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2) 분석 결과

다음 <표 10>은 GOMS 2010sus 졸업생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다항로짓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기준은 1차 조사 시 NEET였던 그룹이며, 이 그룹에 비해 2차 조사 시 신규로 NEET가 된 그룹과 1-2차 조사 시 모두 NEET가 아니었던 그룹이 어떠한 차별적인 특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표를 보면 예상했던 대로 1-2차 조사 시 비 NEET 그룹과 1차 조사 시 NEET 그룹 (그리고 2차 조사 시 신규 NEET 그룹) 간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 NEET 그룹은 NEET 그룹에 비해 희망임금도 높았고, 이를 두 변수로 분해하더라도 졸업 대학의 평균적인 희망임금 수준도 높았고 희망임금의 잔차 값도 높았다. 졸업평점도 보다 높았으며, 자격증 수도 많았다.

반면 1차 조사 시 NEET 그룹과 2차 조사 시 신규 NEET 그룹 간에는 능력과 관련된 대부분의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평점이나 토익성적, 그리고 자격증 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희망임금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 희망임금을 두 변수로 분해하여 분석할 경우 졸업 대학의 평균적인 희망임금은 유의한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희망임금의 잔차는 2차 조사 시 신규 NEET 그룹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⁶⁾

인적속성과 가정환경 그리고 전공계열을 통제하더라도 비 NEET 그룹과 NEET 그룹 간에는 능력과 관련된 여러 변수들이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는 반면, 1차 조사 시 NEET 그룹과 2차 조사 시 신규 NEET 그룹 간에는 대부분의 변수들이 유의한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1차 조사 시 취업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차 조사 시 NEET 상태로 있던 사람들과 유사한 정도로 능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사람을 중심으로 2차 조사 시 NEET로 변화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26) 가정환경을 나타내주는 변수들은 대체로 유의하지 않았다. 비 NEET 그룹이 가구소득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유의한 플러스 값을 보이는 정도가 주목된다. 전공계열 변수를 보면 비 NEET 그룹은 1차 조사 시 NEET 그룹에 비해 공학과 의약계열의 비율이 더 높고 교육계열은 비율이 더 낮으며, 2차 조사 시 신규로 NEET가 된 그룹은 1차 조사 시 NEET 그룹에 비해 사회계열과 교육계열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다항로짓 분석 결과 (2010년)

	Model 1		Model 2	
	2 조사 NEET	1-2차 조사 비NEET	2차 조사 NEET	1-2차 조사 비NEET
남자=1	-0.739*** (0.115)	0.124* (0.071)	-0.743*** (0.115)	0.233*** (0.071)
연령	0.079*** (0.023)	0.046*** (0.016)	0.092*** (0.023)	0.060*** (0.016)
졸업대학 평균 희망임금	0.280 (0.178)	1.076*** (0.114)	-0.493 (0.425)	1.275*** (0.257)
희망임금 잔차			0.424** (0.192)	1.033*** (0.122)
졸업평점	0.058 (0.047)	0.188*** (0.029)	0.042 (0.047)	0.193*** (0.029)
토익성적	-0.071 (0.046)	0.041 (0.029)	-0.050 (0.048)	0.035 (0.030)
토익성적 존재=1	-0.356*** (0.101)	-0.271*** (0.060)	-0.298*** (0.105)	-0.287*** (0.062)
자격증 수	0.041* (0.024)	0.078*** (0.015)	0.037 (0.024)	0.079*** (0.015)
전공계열				
사회	-0.342** (0.135)	-0.109 (0.086)	-0.292** (0.138)	-0.096 (0.086)
교육	-0.827*** (0.188)	-0.475*** (0.107)	-0.755*** (0.192)	-0.481*** (0.109)
공학	-0.267* (0.145)	0.252*** (0.086)	-0.222 (0.145)	0.297*** (0.087)
자연	-0.157 (0.150)	0.056 (0.096)	-0.109 (0.152)	0.051 (0.097)
의약	0.319* (0.176)	0.709*** (0.124)	0.350** (0.175)	0.876*** (0.123)
예체능	-0.144 (0.143)	0.034 (0.095)	-0.131 (0.143)	0.002 (0.095)
아버지 학력				
고등학교	0.036 (0.113)	-0.021 (0.069)	0.040 (0.113)	-0.023 (0.069)
(전문)대학 이상	-0.173 (0.129)	-0.098 (0.078)	-0.147 (0.129)	-0.106 (0.078)
가구소득				
300~400만원	0.020 (0.107)	0.030 (0.065)	0.024 (0.107)	0.030 (0.065)
400~500만원	-0.054	-0.020	-0.048	-0.020

	(0.129)	(0.077)	(0.129)	(0.077)
500~700	0.276*	0.161*	0.287*	0.159*
	(0.149)	(0.095)	(0.149)	(0.095)
700~1000만원	0.267	0.238	0.285	0.234
	(0.234)	(0.148)	(0.234)	(0.148)
1000만원 이상	0.159	0.372**	0.170	0.372**
	(0.294)	(0.175)	(0.293)	(0.175)
소득없음, 안계심	0.853**	0.720**	0.847**	0.722**
	(0.420)	(0.312)	(0.422)	(0.312)
상수항	-4.536***	-10.280***	1.026	-12.141***
	(1.347)	(0.861)	(3.130)	(1.893)
관측치 수	10,552	10,552	10,552	10,552

6절 정책적 시사점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한국은 청년 NEET 비율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특히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학력 계층에서 NEET 비율이 심각하게 높은 상황이다. GOMS 자료를 이용하여 대졸자를 대상으로 NEET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능력이 낮은 졸업생일수록 NEET 상태로 남을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위권 대학 졸업생일수록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상대적으로 능력이 뒤처지는 졸업생일수록 NEET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졸업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NEET 상태에 있던 그룹과 이로부터 2년 후 새로 NEET 상태로 변화한 그룹 간에는 능력과 관련된 대부분의 변수들이 유의한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 졸업 후 초기에 취업해 있더라도 능력이 낮은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NEET로 변화하는 경향성이 존재함을 시사해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한국 청년층의 고용 문제를 단순히 실업 문제에 국한해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청년층의 경우에도 실업률이 OECD 평균 정도 수준이다. 하지만 취업해 있거나 정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으며 비경제활동인구에 남아 있는 청년들까지를 합한 NEET 규모를 보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국가군에 속한다. 사실 청년층의 경우 실업과 비경제활동 상태 간의 경계는 모호하다. ‘취업준비’를 하고 있거나 ‘쉬었다’고 응답하는 비경제활동 청년들 대부분은 비자발적인 상태에서 마땅한 취업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실업자만큼이나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포괄해야 한다.

둘째, 한국에서 이처럼 NEET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고학력화’ 현상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면적인 이해일 수 있다.²⁷⁾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NEET 비율이 감소하는 추

27) 예를 들어 남재량·김세움(2013)에서는 청년 NEET의 증가 원인을 “대학진학을 급증에 따른 고학력 청년 공급과잉”에서 찾고 있다. “대학진학을 급증으로 인한 고학력 청년 공급과잉에 따른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지속하여 실업상태를 계속 유지할 유인이 별로 없고,”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 구직활동을 할 경우 경력상의 나쁜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비노동력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학력화에 따라 NEET 비율이 증가하는 추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1~2% 수준이긴 하지만 대학 이상 학력의 청년층이 고등학교 학력의 청년층보다도 NEET 비율이 더 낮은 상황이다. 대학진학률 증가로 노동시장에 대졸자 공급이 증가하여 NEET 비율이 증가하였다면, 반대로 노동공급이 감소한 고졸 계층에서는 NEET 비율이 감소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졸 학력계층에서도 NEET 비율이 OECD 국가들 중 역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문제는 대학 교육을 받고서도 NEET 비율이 감소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지, 대학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NEET 비율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후자처럼 고학력화가 NEET의 원인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진학률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로 일부의 청년들이 이제 대졸자가 아닌 고졸자로 남게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한국 노동시장에서 NEET 비율이 감소하게 될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평균적으로 고졸자는 대졸자에 비해 NEET 비율이 높다. 대졸자가 줄어 이들 계층에서 NEET 비율이 감소한다면, 반대로 고졸자 증가로 이들 계층에서의 NEET 비율은 증가할 것이다. 교육이 가지는 인적자본 향상 효과로 인해 NEET 비율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결국 대졸자의 고졸자로의 변환은 전체적으로 NEET 비율을 오히려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저학력 NEET일수록 경제활동 상태가 ‘취업준비’ 인 경우 보다는 ‘쉬었음’의 비율이 더 높아져 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왜 다른 OECD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대학 교육을 받은 청년 계층에서도 NEET 비율이 뚜렷하게 하락하지 않는지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몇 가지 힌트를 제공한다. 우선 가정환경이 여유로운지 여부는 NEET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인의 능력과 NEET 확률 사이에는 뚜렷한 마이너스 상관성이 확인된다. 하위권 대학일수록 그리고 그 내부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NEET로 남게 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능력이 하위 수준에 있는 대졸자들을 중심으로 졸업 후 직면하게 되는 노동시장의 임금수준이 자신의 기대 수준에 맞지 않는 경향이 보다 강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특히 하위권 대학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취업 눈높이, 즉 유보임금 수준을 낮추도록 노력하는 방법이다. 한국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의 한계를 설명하고, NEET 상태로 남는 경우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낮은 수준의 일자리라도 우선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처음 자신의 기대수준에 맞지 않은 일자리라 하더라도 일단 취업을 해서 실제 일을 경험하면 자신의 선입견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직장에서 경력을 쌓아 나가면 처음 시작 시점보다 노동조건이 양호해지고, 이로 인해 직장만족도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이고 중요한 대안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과연 이러한 방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대학 졸업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1차 조사)에서 NEET 비율과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지난 3년 6개월 시점(2차 조사)에서 NEET 비율은 유사한데, 2차 조사에서 NEET 상태에 있는 청년 중 과반 수 이상은 1차 조사 시 취업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또 2차 조사 시 새로 NEET가 된 청년과 1차 조사 시 NEET였던 청년 간 능력의 분포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하위권 능력 분포를 갖는 계층을 중심으로 1차 조사 시 취업해 있던 청년이라도 2차 조사 시 새로 NEET 상태가 되는 경향이 상당 규모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이들을 취업으로 유도한다고 해서 NEET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취업해 있는 청년들 중 NEET로 돌아오려는 경향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세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8~19쪽)

, 결국 핵심은 초기에 NEET가 되거나 혹은 일단 취업하더라도 다시 NEET로 돌아오는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조건 자체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청년 개인의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직면하는 예산제약선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예산제약선이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이를 인위적인 정책을 통해 변화시키기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현재 청년들이 선망하여 길게 줄을 서고 있는 대기업, 공공부문, 금융부문 등의 일자리들은 왜 노동조건이 좋은 것일까? 입사자의 개인적 능력이 뛰어나서일까? 반대로 청년들이 가기 꺼려하는 중소기업은 취업자의 능력 수준이 낮아 노동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물론 개인의 능력이 다르고 이에 따라 노동조건이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와는 무관하게 기업들의 지불능력이 서로 다르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제도가 다르며,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노동조건이 달라지기도 한다. 동일한 능력의 청년이라 하더라도 어느 직장에 취업하느냐에 따라 노동조건이 크게 달라진다면,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일자리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인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제도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청년에게는 누구나 자신의 능력 수준과 노력 정도에 맞는 대우를 노동시장에서 받을 권리가 있다.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은 NEET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 요인이다.

< 고 문 헌 >

- 전용일· 조준모(2007). 한국형 니트 (NEET) 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 서울: 노동부.
- 김영철(2015). 노동시장 이중 선별구조를 활용한 입시체제 분석. 재정학연구, 제8권 제4호, 25-70.
- 김유선(2017). 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 청년 니트 비용 OECD 3위, GDP의 1.5-2.5% -. 노동 사회, 197, 52-77.
- 김종욱(2017). 최근 청년층 니트 (NEET) 의 특징과 변화. 노동리뷰, 97-110.
- 남기곤(2011). 유휴청년층의 규모 및 시계열 추이. 한밭경상연구. 제3권. 39-70.
- 남재량(2006).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한국노동연구원.
- 남재량(2011). 최근 청년 니트(NEET)의 현황과 추이. 노동리뷰, 29-40.
- 남재량·김세움(2013). 우리 나라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 시장 성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오민홍(2007). 니트의 결정요인 분석. 청년패널심포지엄, 한국고용정보원.
- Bynner, J., and Parsons S.(2002). “Social Exclusion and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The Case of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60, No. 2, 289-309.
- Chen, Y. W.(2011). “Once a NEET always a NEET? Experiences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among youth in a job training programme in Taiwa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20, No. 1, 33-42.
- Great Britain. Cabinet Office. Social Exclusion Unit.(1999). “Bridging the gap: new opportunities for 16-18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Maguire, S.(2015). “NEET, unemployed, inactive or unknown—why does it matter?” *Educational research*, Vol. 57. No. 2, 121-132.
- OECD(2016). Society at a Glance 2016.
- Pemberton, S.(2008). “Tackling the NEET generation and the ability of policy to generate a ‘NEET’ solution—evidence from the UK.”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Vol. 26, No. 1, 243-259.
- Ranzani, M., and Rosati, F. C.(2013). “The NEET trap: A dynamic analysis for Mexico.” Background paper for the WDR.
- Yuji G.(2007). “Jobless youths and the NEET problem in Japan.”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Vol. 10, No. 1, 23-40.